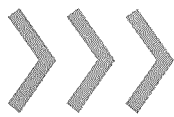


세계 50대 석유회사들



수퍼메이저 석유회사들의 기업순위가 매년 상승하며 톱10의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는 반면 기존의 국영석유회사들은 경영활동의 상대적인 위축으로 조금씩 밀리는 추세임.

OECD 회원국 석유회사의 50대기업 점유율은 하락 추세임. 특히 최근 대규모 합병과 계열화 추세의 영향으로 50대 기업 중 미국계 석유회사의 점유율이 과거의 절반인 7개회사에 그침.

신흥 슈퍼메이저 기업들은 과거의 석유메이저기업보다 영업활동에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신흥 슈퍼메이저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산업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 없음. 국영석유사는 매장량과 생산 등 상류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신흥 메이저들은 정제 및 마케팅 등 하류부문을 주도하고 있음.

세계 50대 석유회사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지는 2002년 12월 세계 약 120개 석유회사들의 2001년 기업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계 50대 석유회사를 선정 발표하였다. 매년 선정되는 세계 50대 석유회사의 선정 기준은 영업이익률과 자산규모 등 재정과 함께 원유 및 천연가스 보유 매장량, 석유정제 능력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고용실적 등 다양한 이들 요인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비교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톱10, 슈퍼메이저 약진

2001년 세계 석유회사의 기업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세계 석유산업에서 신흥 슈퍼메이저를 포함한 민간 석유회사들이 톱10의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고 국영 석유회사들은 조금씩 밀려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말 석유회사들의 대규모 합병으로 인하여 탄생된 새로운 슈퍼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개도권 산유국 국영석유회사들의 기업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나타난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 추세가 대부분 완료단계로 접어들면서 신흥 슈퍼메이저들의 경영입지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민간 석유회사들은 수년간 기업인수합병을 통해서 특히 상류부문 자산의 운영규모를 국영석유회사들과 경쟁할만한 수준으로 덩치를 키웠으며 일부 주요한 하류부문 사업에서는 국영석유회사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톱10에는 ExxonMobil(2위), R/D Shell(5위), BP(6위), ChevronTexaco(8위), TotalFinaElf(9위)의 5개 신흥 슈퍼메이저와 부동 1위의 Saudi Aramco, 3위의 밀려난 PDV(Petroleos de Venezuela)와 4위의 NIOC(National Iranian Oil Co), 그리고 7위를 기록한 멕시코 Pemex와 일부 민영

화가 진행된 10위의 중국 PetroChina 등 5개의 국영 기업들이 차지하였다. 세계 석유회사 톱10에서 기업순위의 가장 큰 변화는 합병을 통해 단숨에 6계단을 뛰어오른 미국계 ChevronTexaco사의 등장이다. 이외에도 ExxonMobil이 베네수엘라 PDV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선 것과 BP가 Pemex를 누르고 6위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2002년 세계 10대 석유회사

순위 2001	순위 2002	회사명	정부지분	매장량순위		생산량 순위	
				석유	가스	석유	가스
1	1	S. Aramco	100%	1	4	1	8
2	3	Exxon-Mobil		14	12	5	2
3	2	PDV	100%	5	7	4	13
4	4	NIOC	100%	4	2	2	6
5	5	R/D Shell	-	16	13	7	3
6	7	BP		19	17	10	4
7	6	Pemex	100%	7	15	3	10
8	14/17	ChevronTexaco	-	18	21	9	11
9	8	Total-Fina-Elf		22	20	12	12
10	9	PetroChina	90%	15	18	8	25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2, 12, 23

■ 50대 기업 순위변동의 특징

전체 50위권에서도 주목할만한 변화들을 찾아볼 수 있다. 총 24개 석유회사가 순위 상승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14개로 국영기업 10개를 앞지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순위 상승을 보인 기업은 13위를 기록한 미국계 ConocoPhillips사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Sinopec(23위), 캐나다 EnCana(41위), 아제르바이잔 Socar(35위), 카자흐스탄 Kazmunaigas(47위), 캐나다 Talisman Energy(49위) 등이 작년 50위권 이하에서 약진한 기업들이다. ConocoPhillips사는 무려 13계단이나 점프하였고 Encana는 22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그러나 작년엔 50위권에 있던 캐나다 Encana의 모기업 Albert Energy와 PanCanadian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러시아의 Tatneft(50위), 캐나다 Talisman Energy, 카자흐스탄 Kazmunaigaz는 50위권 안으로 올해 첫 진입하였으며 46위의 미국계 Unocal은 2년만에 다시 50위권으로 재진입하였다.

세계 석유산업의 구조변화는 PIW가 순위를 기록한 지난 12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석유산업의 변화 흐름이 최근의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새로운 주역들을 등장시켰다. 특히 미국계와 영국 및 프랑스계 석유기업들의 인수합병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1989년 세계 50대 석유기업에 포함되었던 메이저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민간 석유회사들의 그 동안의 기업활동의 변화로 지금은 단지 10개 회사만이 50대 기업군에 남아 있을 뿐이다. 미국계 석유회사는 당시 15개에서 현재 7개만 남아있으며, 그 중에서 Marathon, Amerada Hess, Unocal 등 3개사만이 합병의 홍수속에서 살아남았다. 이외에 영국계는 4개에서 2개 회사로 프랑스계는 3개에서 1개 회사로 줄어들었다.

세계 50대 석유기업 중 민간회사의 생존 변화

구분	1989년	2001년
미국계 (15 → 7)	Exxon, Mobil, Chevron Amoco, Texaco, Arco, Conoco, Marathon, Unocal, Phillips, Amerada Hess, Oryx, Occidental, Sunoco, Coastal	ExxonMobil, ChevronTexaco, ConocoPhillips, Marathon, Amerada Hess, Unocal Anadarko*
영국계 (4 → 2)	BP, RD/Shell, British Gas, Ultramar	BP, RD/Shell
프랑스계 (3 → 1)	Total/CEP, Elf Aquitaine, Petrofina	TotalFinaElf

주 : *는 90년대에 새로 50위권에 포함된 미국계 기업 자료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2. 12. 23

한편 신흥 슈퍼메이저와 다른 독립계 민간 석유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의욕적인 인수합병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순위 상승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윤 증대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메이저들이 지배하는 기존의 OECD 지역이 아닌 개도국 신흥시장에서 많은 새로운 석유기업들의 출현과 이들 기업들의 약진 때문이다. 더구나 이탈리아, 노르웨이 같은 OECD 국가의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거센 민영화의 압력으로 이들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이후 이들 국영기업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석유산업의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사실상 다양한 측면 분석해 보면, 최근 메이저 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 바람은 이 같은 전세계적인 경쟁 압력에 따른 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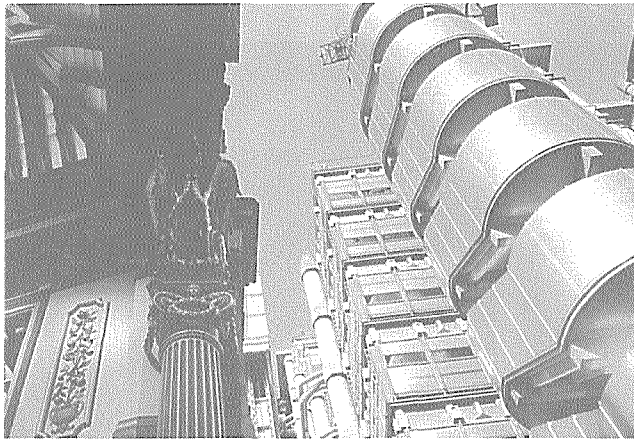
■ 구소련과 중국 석유기업들 빠른 성장세 기록

구소련, 중국 석유산업 활동

회사명	순위	석유(*백만 bbl, 천 b/d)			
		매장량*	생산량	정제능력	판매량
PetroChina	10	10,959	2,092	1,917	1,033
Sinopec	23	3,215	737	2,622	1,360
Lukoil	26	17,360	1,200	419	923
Surgutneftgaz	27	6,642	884	346	280
Gazprom	30	14,902	198	0	100
Yukos	31	12,581	1,162	748	555
Tyumen Oil	32	7,300	812	493	310
Rosneft	34	6,388	299	199	274
Socar	35	3,105	180	400	178
Sibneft	40	4,700	345	390	216
Slavneft	42	2,816	299	290	249
Sidanco	44	6,577	183	141	80
Kazmunaigaz	47	647	110	110	40
Tatneft	50	6,088	492	8	475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1. 12. 17

냉전시대의 종료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구소련과 중국은 많은 새로운 석유기업들을 양산해왔다. 이들 석유



회사 가운데 대다수가 현재 완전 민영화사 체제이거나 민영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새로운 대형 석유회사의 등장은 10년 전 세계 석유산업을 양분하던 미국계 석유회사와 OPEC 회원국 국영석유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러시아는 2002년 기업순위 50위권에 10개 기업이 선정됨으로써 작년에 이어 가장 많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구소련 전역으로 확대해 보면, 총 12개 석유회사가 50대 기업에 선정되었고 중국은 2개 석유회사가 50대 기업에 들었다. 1989년으로 돌아가면 구소련과 중국 모두 PIW가 선정된 50대 기업에 전혀 들지 못하였던 사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양국의 신흥 석유회사들은 기업출범 이후 합병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민간기업의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러시아의 10개 석유회사 가운데 Rosneft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 상·하류부문, 합병 및 민간기업 순위변화

상·하류부문에서 근본적인 구도에는 변화가 없으나 순위에 있어서 민간 합병기업과 러시아 석유회사들의 순위 상승이 돋보였다.

상류부문에서, Saudi Aramco사는 매장량과 원유생산 양 부문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2001년도 4위 러시아계 Gazprom사가 산유량 약 40만b/d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다른 러시아 회사들도 주로 상류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Lukoil과 Yukos사는 매장량부문 상위 20위안에 들었다. 또한 ChevronTexaco사와 ConocoPhillips사는 인수합병의 결과 산유량에서 각각 9위와 18위로 20위 안에서 순위를 지켰다. 하류부문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의 영향으로 PDV, Saudi Aramco, Pemex와 같은 국영석유회사들이 정제와 제품 판매 부문에서 계속 민간기업에 선두자리를 내주고 있다. ChevronTexaco사는 석유제품 판매에서 5백만b/d를 기록해 4위로 경총 뛰어올랐고, 정제능력은 235만b/d로 8위를 기록하였다. 역시 ConocoPhillips사는 정제능력에서 261만b/d로 6위, 제품 판매부문에서는 265만b/d로 8위를 차지했다. Valero Energy사는 Ultramar Diamond Shamrock를 인수함으로써 정제능력에서 190만b/d의 12위로 뛰어올랐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연구위원)

순위	석유·가스매장량		석유제품 판매량	
	회사명	백만 BOE	회사명	천 b/d
1	S. Aramco	300,453	Exxon-Mobil	7,971
2	Gazprom	239,040	BP	6,206
3	NIOC	229,752	R/D Shell	5,720
4	INOC	131,431	ChevronTexaco	5,072
5	KPC	105,584	PDV	3,200
6	PDV	103,351	TotalFinaElf	3,154
7	Qatar Petroleum	102,872	S. Aramco	2,725
8	Adnoc	90,359	ConocoPhillips	2,648
9	Pemex	51,946	Petrobras	2,289
10	Libya NOC	31,600	Pemex	1,711

자료 : PIW Ranks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2001. 12. 17